

문영숙의 꼭 알아야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12>동양의 카네기, 거부가 되다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다녀와 폭넓은 인맥 동원
군대에 육류 납품으로 거부가 된 후
전 재산 털어 항일의병투쟁을 지원한 한인 독립운동의 대부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청나라에서는 의화단(義和團) 사건이 일어났다. 의화단 사건은 서양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 청국의 이권을 뜯어가자 청국의 개혁파들이 “외국인에게 죽음을(滅洋)”이란 기치를 내걸고 외세배척을 앞세워 폭동을 일으켰다. 의화단 사건은 외국인 선교사를 죽이고 공장·교회 등을 파괴한 사건으로 폭동은 청나라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의화단의 봉기가 만주까지 번지면서 동청철도가 파괴되고, 철도수비 병력인 러시아 병사들과 충돌하자, 러시아는 7월에 만주에 파병을 하고, 10월에 전 만주 지역에 군사들을 보내 점령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이동하려면 군수품을 나르는 교통수단이 필요했다. 부지런한 한인들은 군인들이 필요한 운수업을 시작했다. 의화단 사건 덕에 운수업은 최고의 돈벌이가 되었다. 한인들은 재산이 쑥쑥 늘어났다. 한인 중에서도 한익성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최봉준은 큰 재산을 모았다.

의화단 사건에 뒤를 이어,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한인들이 할 일은 더 많아졌다. 특히 최재형은 군대에 물품을 납품해서 굉장한 부를 이루었다.

최재형은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제1차 한인대표로 다녀온 후, 탄탄한 인맥을 통하여 안치해 군대의 어용상인으로 군부대에 소고기를 납품했다. 무려 한달에 소 150두를 납품했고 그 사업은 최재형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다.

최재형은 돈을 벌어서 한인들의 편의

와 포시에트 지역의 상업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최재형이 당시에 큰돈을 벌어서 유지한 회사는 주린,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피안코프, 마르코프등 규모가 큰 회사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회사 건물은, 지금도 화려하고 장엄한 유럽식 건물로 그 위용을 간직한 채 보존되어 있다.

최재형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바실리 루키츠, 한 엘리 세이 구키츠 형제와, 김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최 니콜라이 루키츠 등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최재형과 함께 함경북도에서 러시아로 이주해 온 최봉준은 최재형보다 두 살이 많았는데, 직접 배를 가지고 일본과 무역을 한 사람으로 조선 최고의 무역 왕이라 할 만한 인물이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최봉준은 나중에 최재형과 등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최봉준은 어떤 인물인가. 수원대 사학과 박환 교수는 최봉준의 삶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최봉준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한 글 신문인 ‘해조신문’을 1908년 2월 펴낸 해조신문 창간호에서 “우리의 문명 제도를 받아 가던 일본에 보 호라고 하는 더러운 칭호를 받으니”라고 분개하며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또한 성진 신령의 학교 교장은 물론 연해주 명동학교, 크라스키노(연 주) 성흥의숙 설립 등 최재형처럼 교육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계몽운동가답게 안창호와 가깝게 교류하며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 밖에 최봉준은 한때 ‘대동공보’(大東共報)의 운영자금을 맡았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 후에는, 그의 변호비와 유족의 생계비를 위하여 많은 금액을 전달했

다.1910년 8월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이상설, 유인석, 김학만 등이 시베리아 신한촌에서 한인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성명회의 선언서 작업을 함께했다.

그러나 최봉준은 최재형과 달리 의병들의 항일무장투쟁에는 반대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크라스키노 지역 자산가이자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과 함께 활동해 왔지만, 1909년 최재형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며 무장투쟁을 하기위해 최봉준에게 원조 요구를 하자, 최봉준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한 이유로 최재형과 최봉준이 갈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학계 일각에서도 최봉준의 친일 행적을 증거로 삼는 사례가 되기도 했지만, 친일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인 계몽주의자 최봉준의 한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최봉준에게는 공훈을 늦게 해서 1996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위에서 밝힌 박환교수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최봉준은 항일무장투쟁이 자신의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최봉준은 의병들이 일본을 상대로 항일투쟁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는 자신의 배들이 일본에 막대코 왕래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일본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봉준과는 달리 최재형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항일투쟁이 먼저였다.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조선을 지켜 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항일투쟁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최재형은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하는 대한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대한의군의 의식주를 지원했던 것이다.

<참고서적>

참고서적 : 박환 교수의 <시베리아 한인 독립운동의 지도자 최재형>

리채운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12화)

공자의 7가지 교육원칙



리채운
도서출판 작가교실 대표

공자의 교육철학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사상이다. 공자는 누구나 배워서 깨치고 성인군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누구나 가르쳤다. 공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7가지 교육원칙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성리학이 지배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그 목표가 분명했다. 공맹(孔孟)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에게 사랑의 도리를 가르치며 그들이 공부하면서 깨친 경륜을 세상에 펼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을 배출하는 것이었다.

유가의 교육 사상은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약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부분을 일깨워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데 있었다. 공자는 배움에 있어서 중인(衆人)과 군자의 바탕이 따로 없음을 강조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라면 누구나 배워서 깨치고 성인군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누누이 가르쳤다.

조선시대는 남녀의 차별이 유별하고 양반 계층이 지배하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가 사상 자체는 인간 모두를 포용하는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공자의 교육철학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사상이다. 공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

① 젊은이들은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②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③ 두루 사람들에게 예절 발라야하고 ④ 사람을 사람에 있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며, ⑥ 어린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⑦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학문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교육철학이다.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의 초심자를 위한 수많은 학습교재가 공자가 제시한 7가지 교육원칙 하에 씌어졌다는 점이다.

공자가 제시하고 있는 일곱 가지 교육철학을 대략 살펴보기로 하자.

공자의 첫 번째 교육원칙은 ‘효도 교육’이다.

맹무백(孟武伯)이 효를 묻자 공자는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근심하신다.(孟武伯問孝, 子曰, 父母, 唯其疾之憂)’고 대답했다.

알핏보면 문문서답이 따로 없는 참으로 애매한 대답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로 오묘한 두 가지의 미가 담겨 있다. 부모는 자식이 병들까 전전긍긍하며 자식의 건강만을 걱정하니 자식이 건강한 것이 바로 효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이처럼 늘 자식의 안위를 근심하듯이 자식도 부모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다. 율곡은 <경동요결>에서 부모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식이 태어날 적에 받은 본성과 목숨과 피와 살은 모두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다. 그래서 숨을 쉬어 호흡할 적에 기맥이 서로 통하니, 이 몸은 나의 개인적인 사유물이 아니고 바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기운이니 부모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천지(天地)가 낳은 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데 사람의 행동에는 효도(孝道)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다음호에 계속)

가재산의 삶의 이야기

학창시절 입주 가정교사의 추억



가재산
2층1호 문화연구원 원장

누구에게나 학창시절의 아름답거나 힘들고 어려웠던 잊지 못할 추억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대학 4년간 입주 가정교사의 추억이 스멀스멀 기억 속에 떠오른다. 사실 시골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숙식을 해결할 데가 없었던 나로서는 입주 과외 제도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것이 내 대학시절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조차 없었던 시대였다. 대학생 과외는 ‘입주 가정교사’라고도 불리며 세간에 인기를 모았다. 입주 과외는 학생의 집에 입주해 숙식을 해결하며 애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라 비싼 하숙비를 감당하기 힘든 시골 출신들이 특히 선호했다. 당시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가정교사’를 아르바이트로 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사실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가정교사는 세상물정 모르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 마침 학교와 집은 삼십리 길이라 하는 수 없이 하숙을 하고 있었다. 입학 당시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 아르바이트 인연이 되었다.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부자집 두 아들이 공부 시원찮다고 하면서 나와 같이 하숙을 하며 공부도 곁에서 좀 봐달라는 일이었다. 과외비 조로 한 달에 쌀 네 말이었던 하숙비에다가 약간의 용돈까지 받았으니 큰 도움이 되었고 나름 보람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지 못하고 시골에서 다니며 독학과 다름없이 입시 공부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다. 의외할 고이 전혀 없던지라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입주 가정교사였다. 마침 작은 형님의 지인을 통해서였다.

집주인은 영등포에서 인삼으로 건강식품을 만드는 큰 회사를 운영했다. 자녀가 여럿 있었지만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의 공부를 내게 맡겼다. 그 애의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라 참 애매했다. 부모들은 귀여운 막내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것이 지상목표였기 때문에 과외선생을 고르고 고르다 운 좋게 나를 낙점했다.

사실 가정교사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못할 애로 사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참 팔팔한 나이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집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알게 모르게 사생활까지도 통제받기 때문이다. 그 집은 넉넉한 편이

라 집에 상주하며 일하는 젊은 아주머니가 있었다. 같은 처지의 동병상련이랄까? 그 아주머니가 삼시 세끼 식사에 빨래까지 챙겨주어야 할 애도 불구하고 나를 눈치껏 도와주어 펴 다행이었다. 예를 들어 야유 회라도 같 때면 점심 도시락도 싸 주기도 하고 주인이 집에 없을 때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갈비찜 같은 음식도 슬쩍 퍼주기도 했다. 참 고마운 일이었다.

그 집에서 1년 반을 그러저럭 잘 지냈다. 과외 학생이 기대하던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무사히 진학하자 더 이상 가정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갈 데 없어진 나는 동충동 산책대기 지하 단칸방에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당분간 신세를 졌다. 그 당시는 대학에 가려면 예비고사를 치러야 했다. 그 친구가 학원에 다니며 재수를 하고 있을 때라 내가 약간 도와주는 조건으로 얹혀살았다.

그러다 운 좋게도 모 대학 부총장으로 계시는 교수댁에 입주하게 되었다. 마침 큰형님의 대학 은사시고 오래전 형님도 그 댁에서 잠시 가정교사를 했던 터라 인연이 되었다. 고려대 근처 중앙동 부잣집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대지가 드넓은 한옥에다 대청마루까지 있었고 서재도 큼직했다. 그 집에 동료 교수들은 물론 제자나 학생들이 늘 드나들었다. 입주과외 처음에는 역시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중학생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한동안 나를 지켜보던 부총장님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큰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애시당초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고 놀기를 좋아하는 편파리에 가까운 녀석이었다. 그러니 공부보다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공부할 분위기만 잡아달라는 식이었다. 말하자면 생활지도를 겸한 인성까지도 좀 잡아달라는 주문이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가르치기도 쉬운 데다 인성도 바르다. 반면 공부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별을 별 이유와 핑계를 대서 공부를 하지 않으려 든다. 말하자면 공부와 담을 쌓은 아이들이었다.

결국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까지 그 댁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해결했으니 나로서는 행운이며 최고의 기회였다. 지금 생각해도 입주 가정교사 생활 자체가 내 대학 생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제도가 없었더라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자. 1960년대 고교 비평준화 시절, 명문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외가 사회 문제가 되었다. 당시 명문고였던 경기, 서울, 경북고 등에 진학할 정도의 성적이면, 3년 후에 최소한 SKY대 입학은 거의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

었고, 서울대를 가나 못가냐가 문제였다.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문제 해소를 위해 1970년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전격 시행했다. 평준화 실시 이후 명문고를 가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이제는 대학입시 경쟁이 과열되었다. 1979년 신군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정책으로 1980년 7월 전격적으로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다. 과외를 금지한 대신에 KBS와 MBC에서 방송 시간을 일부 쪼개서 고교 과외 방송을 진행하도록 했고 이듬해에는 별개의 채널에서 교육 방송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KBS 3TV, 즉, 현재의 EBS다.

다만 완전 금지였던 과외를 그 이후로는 점차 규제를 풀었다. 게다가 과외가 비밀과외 형태도 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특별 과외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자 1989년 2월 대학생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90년대부터는 몇 만원 하는 동네 과외서부터 고액과외까지 성행했고 일반인 과외 금지 규정도 해제되었다. 지금은 과외보다는 거의 아르바이트로 통용된다.

그 당시 입주 과외의 동기는 학습방법의 지도, 성적이 불량한 교과목의 학습, 예능 실기 지도, 삼급 학교 입시 준비에 대처하기 위한 학습지도 등이었다. 공부를 가르치는 일 외에도 생활지도나 인성적인 측면까지 돌봐주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해서 자녀와 동성인 교사를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집에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학생의 형제자매와 비밀리에 사교를 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똑똑한 가정교사가 부유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근대 배제의 소설이나 영화같은 창작물을 보면 가정교사가 주인공으로 자주 나오며, 특히 로맨스물인 경우 가정교사로 들어온 여교사와의 로맨스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한국에서도 1963년 제작된 김기덕 감독의 ‘가정교사’라는 영화도 엄연한, 신성일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데 가정교사와 두 형제간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그토록 사연도 많았던 입주 과외의 역사는 이제 하나의 옛이야기가 되었다. 지금은 학생도 입주 과외 지도를 받길 원하지 않겠지만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를 가진 부모라도 자기 집에 입주 교사를 기거시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다. 그야말로 입주 가정교사는 이제 전설처럼 되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입주 가정교사를 허락해주신 분들은 나에게 은인이자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참으로 고마운 분들임이 틀림없다.

CTN문학관



김성수 (시인·낭송가)

충남 태안 출생. 한국문인협회 회원, 계간 문학에 회원, 시평문학 회원, 종합 유성문학총합지회장, 한국시낭송 연합 총합회장, 한국말은소리문학에 협회 회장, 국자강 문학상 수혜, 시낭송 1급지도자, 민간자격증 21개 보유, 창작지원금2회수혜, 시집 『술개의 눈물』, 『술비림비』, 『노을따라가는 세월』, 『길잃은 바람』, 『짐자는 연필』, 『춤추는 창고』

바이러스

논두렁 김성수

불편하게 다가온 불청객 함께 하리란 생각이 전혀 해보지도 안 했었다. 부자연스럽게 생활의 균형은 잃어가고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어야만 했다. 어차피 이제는 함께 동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서서히 적응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왔나 우리 인간이란 동물이 만든 환경의 오염에서 오는 것이기에

겸허히 맞이해야 하는 벌이기도 하다. 지구는 병이 들어 늪으려하는 걸 어찌 입시로 급급해야만 하는 것인가. 무서운 벌레 치료할 수 없는 지구는 시름시름 병들어 자라에 늪을 것이다. 그때 벌레들도 죽어 서서히 없어질 것이고 쓰러진 지구 방향 속에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